

### Ⅲ

## 러시아

2010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유가 상승 및 정부의 적극적 부양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전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여 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물가는 2009년 이후 루블화 강세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0년 전체로는 약 6.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정수지 적자는 고유가에 힘입어 GDP 대비 4.8%로 축소되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4.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러시아는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완만한 경제 성장을 시현해 2010년과 유사한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1~12년 총선 및 대선 일정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7.4% 수준으로 예상되며, 재정적자도 전년대비 다소 축소된 GDP의 3.9% 수준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3.7%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러시아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에너지 산업 의존과 산업경쟁력 부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공 여부가 러시아 경제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1. 2010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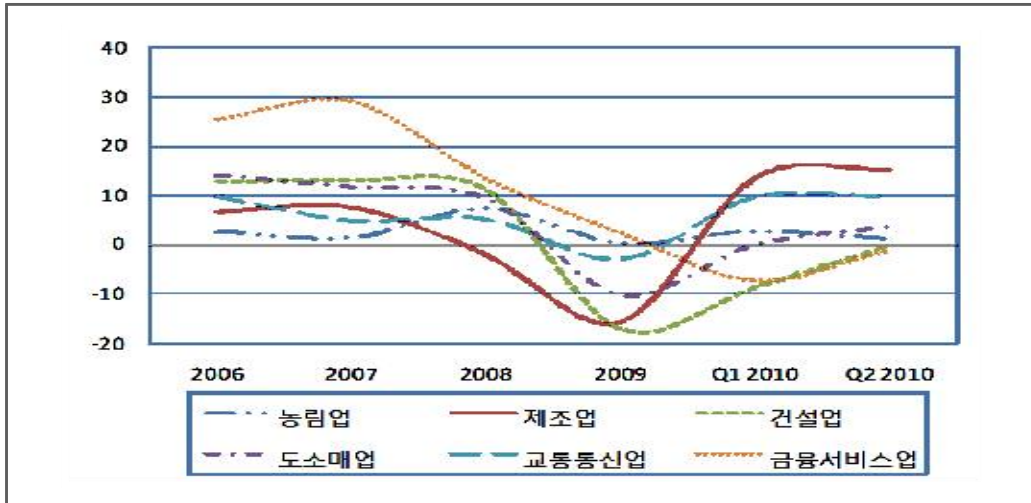
#### 가. 경제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2009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최초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1>

러시아의 주요 산업 분야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5.2%를 기록해 1분기의 3.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3분기에는 수출 증가 둔화, 여름에 발생한 가뭄과 산불로 인한 농작물 생산 차질 등으로 2.7%로 상승 폭이 축소되어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4분기에는 성장률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9년 -7.9%에 비해 크게 회복된 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세를 이끌었고 교통과 통신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은 2010년 2분기에 3.7% 증가해 국내 소비 회복세를 반영했으며 건설업과 금융업은 각각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주요 건설업체의 부도 및 과도한 부실자산 부담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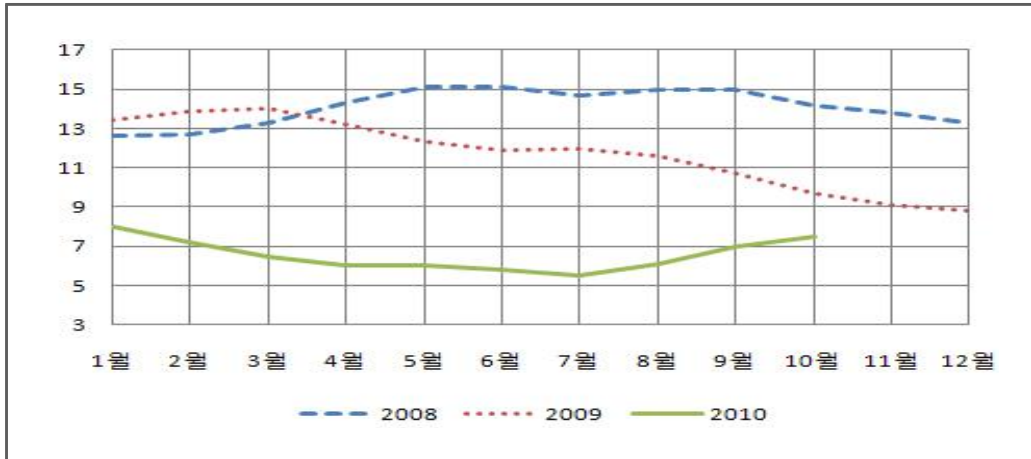
####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및 루블화 가치 안정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 이후 오일달러 대량 유입,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1%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14.1%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림 III-2>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009년 들어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루블화 강세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10년 7월에는 1998년 7월 이후 최저치인 전년동월 대비 5.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4.4%에 그쳐 전년 동기의 7.4%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10년 8월 이후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sup>1)</sup>되었으나 2010년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한 상승 폭을 보이며 2009년의 절반 수준인 약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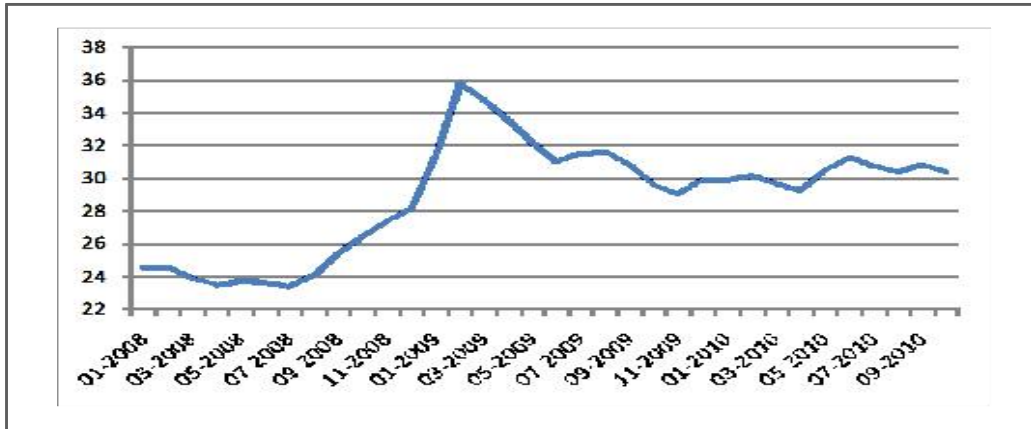
한편, 루블화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 및 오일달러 유입 감소의 영향으로 급격히 약세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시장에 달러를 대규모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2009년 들어 유가 상승 및 해외 자본 유입에 힘입어 2009년 2월 달러당 35.8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며 동년 11월 29루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0년 1~10월 중에는 달러당 29.2~31.2루블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0년 연중 기준으로 달러당 환율(연평균)이 30.31루블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 2010년 8월 3일 주요 밀수출국인 러시아 등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9월물 밀 가격이 7.11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III-3>

루블화 환율 추이

단위: 루블/미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다. 재정수지 적자 폭 축소

재정수지는 2010년에 고유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적자 폭이 축소되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0년 1~9월 중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2%를 기록하는 데 그쳐 전년 동기의 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sup>2)</sup> 2010년 1~9월 중 세출 규모도 GDP의 22.7%인 예산안에 비해 다소 감소한 GDP의 20.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 4분기에 집중된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적자 규모는 다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말 GDP 대비 4.8%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2010년 1~9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60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330억 달러에 비해 약 85%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09년 1~9월의 760억 달러에서 2010년 1~9월 1,14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0년 상품수출 규모가 38% 증가한 데 비해 상품수입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2) 2010년 세입 6조 9,500억 루블, 세출 9조 8,869억 루블 규모, GDP 대비 6.8% 수준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고유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GDP 대비 5.4%로 수정했음.

<표 III-1>

러시아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09 1분기	2010 상반기	2010 3분기
경 상 수 지	947	770	1,037	494	179	522	87
무 역 수 지	1,393	1,309	1,554	1,116	430	860	285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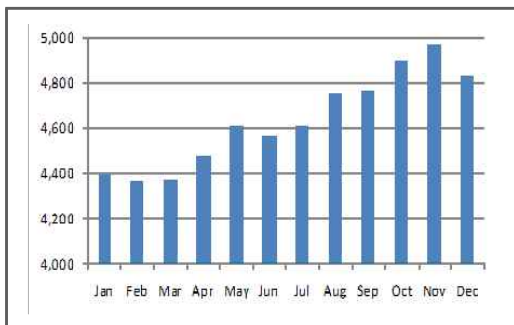
2010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35억 달러와 18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87억 달러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경기 회복세로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4%인 69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외환보유액 증가세 회복

2002년 441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8월에는 5,96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8월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외환을 소진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09년 4월 3,839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0년 6월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2월 1일에 4,83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연말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4> 2010년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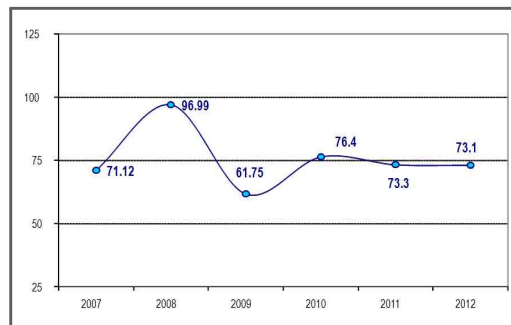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 III-5> 국제 평균유가 추이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주: 브렌트산, 두바이산 및 WTI산 원유가격 단순 평균임.  
자료: World Bank.

<그림 III-6>

RTS 주가지수 추이 (2008~10년)



주: 미달러화 기준임.  
자료: <http://www.rts.ru>.

주가지수(RTS, 달러 기준)는 2008년 5월에 2,296.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 1월에는 498.2로 최고치 대비 80% 이상 폭락했으나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 2010년 12월 23일 현재 1,761.5를 기록하며 8월 이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2. 2011년 전망

### 가.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2011년 러시아 경제는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점진적인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sup>3)</sup>이 내수 진작에 일조할 것이나 유럽의 재정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세계 경기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과 유사한 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3) 실질임금상승률은 2008년 연중 11.5%를 기록한 후 2009년 연중 -2.8%로 크게 하락했으나, 2010년 1~9월 중 5%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실업률의 경우 2008년 및 2009년 각각 7.8%, 8.2%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2010년 1~9월 6.6%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과 재정수지 적자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여름에 발생한 가뭄 및 산불의 영향에 따른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10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7.5% 상승했으며, 하반기의 예산지출 증대 및 2011~12년 총선,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물가상승률은 2010년보다 다소 높은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8월에 발표했던 2011~13년 예산안을 10월에 수정해 국방관련 비용 증대, 보건·교육 등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반영<sup>4)</sup>했으며,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세출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소폭 축소된 GDP 대비 3.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가 러시아 정부의 예상<sup>5)</sup>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다.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2011년 경상수지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국제유가 전망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3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천연가스의 수출액이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11~15년 수출 규모는 5% 미만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급락세를 보였던 수입 규모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 대비 3.7%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4) 원안 대비 세출 증가 규모는 2011년 3,000억 루블, 2012~13년에는 각각 3,920억 루블 및 4,260억 루블 수준으로 전망됨.

5) 러시아 정부는 2011~13년 예산안 편성시 기준 국제유가를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각 75달러/배럴, 78달러/배럴 및 79달러/배럴로 설정했음.

<표 III-2>

러시아 경제 주요 전망

단위: %

구 분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 제 성 장 률	-7.9	4.0	4.3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6.6	7.4
경 상 수 지 / G D P	4.0	4.4	3.7
실 업 률	8.4	7.5	7.3

자료: IMF.

라.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2009년 기준 총수출의 57%, GDP의 약 21% 및 재정수입의 약 48%에 달해 국제 유가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5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원자력, 의료기술, 우주·통신, IT를 선정하여 이들 산업의 중점 육성 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 정부는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주요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정부의 경제 부문 관여를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93년 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가입 신청을 한 이래 오랜 숙원이었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도 2010년 하반기 미국과 EU가 가입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2011년 중에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상 국제 유가 수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국제 평균 유가는 2012년까지 배럴당 70달러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공 여부가 향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